

아동의 정서조절능력 및 자기유능성지각과 문제행동

Relationships Between Children's Emotional Regulation, Perceived Self-Competence and Behavior Problem

동의대학교 보육·가정상담학과
교수 정현희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
겸임교수 정순화

Department of Child Care & Family Counseling, Dongeui University

Professor : Hyeon-Hee Jeong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Korea University

Adjunct Professor : Soon-Hwa Chung

◀ 목 차 ▶

- | | |
|----------------|-------------|
| I. 서론 | IV. 논의 및 결론 |
| II. 연구방법 | 참고문헌 |
| III. 연구결과 및 해석 | |

<Abstract>

The purpose of the study was to examine the relationships between children's emotional regulation, perceived self-competence and behavior problem. The subjects were 357 elementary school students in Busan. The questionnaires on children's emotional regulation, perceived self-competence and behavior problem were used. The results were as follows: (1) According to sex, there were significant differences in children's emotional regulation scores(venting and support pursuit), and according to birth order, there were significant differences in children's perceived self-competence scores and behavior problem scores. (2) There were significant correlations between children's emotional regulation scores and behavior problem scores, and also there were significant correlations between children's perceived self-competence scores and behavior problem scores. (3) Children's perceived self-competence and emotional regulation explained children's anxiety behavior, withdrawal behavior, aggressive behavior, distracted behavior and regressive behavior.

주제어(Key Words): 정서조절(emotional regulation), 자기유능성지각(perceived self-competence), 문제행동 (behavior problem)

I. 서론

최근 행동에서 여러 가지 문제를 보이는 아동의 비율이 점차 증가하면서 아동의 문제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문제행동은 이를 방지할 경우 더욱 악화되며 이후의 여러 사회적 상호작용에서 부정적 결과를 초래한다는 점 때문에 그 원인을 규명하고 이를 사전에 차단하는 것은 중요한 의미가 있다.

문제행동은 아동의 연령이나 사회문화적 규범에서 크게 벗어난 행동으로(Kauffman, 1993), 문제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이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크게 기질 등과 같은 개인적인 요인과 부모의 양육태도나 가정환경과 같은 환경요인으로 구분할 수 있다. 지금까지의 연구결과를 종합해보면 문제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대표적인 변인으로는 기질(임희수, 2001; 정현희, 정순화, 2004; 최영희, 1990; Eisenberg, Fabes, Bernzweig, Karbon, Poulin, & Hanish, 1993), 자아통제력(곽금주, 문은영, 1995; 이경주, 신효식, 1997; Eisenberg *et al.*, 1993), 감각추구성향(정현희·오미경, 2000; 정현희·정순화, 2004) 등과 같은 개인적인 특성과 부모의 양육행동(이선경, 이재연, 1998; 이경주, 신효식, 1998; 임희수, 2001)과 애착유형(곽소현, 김순옥, 2006; 이소희, 노경선, 손석한, 옥정, 김광일, 2002)과 같은 부모요인에 주로 연구의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러한 변인 외에도 최근 자신의 감정을 적절하게 조절하는 것과 자신의 능력에 대한 지각이 문제행동과 관련된 중요한 변인으로 주목되고 있으나 이에 대한 국내의 연구는 아직 미흡한 실정이다. 특히 아동기는 학교생활이 시작되고 또래관계가 확장되면서 지금까지와는 다른 사회정서적인 어려움이 부각되는 시기이다. 이러한 시기에 아동이 자신의 정서를 어떠한 방식으로 조절하며 자신의 능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는 문제행동과 직결될 뿐만 아니라 이후 청소년기나 성인기에서의 적응과 직결되는 중요한 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아동기의 자기유능성지각이나 정서조절능력에 대해 연구하는 것은 큰 의의가 있을 것으로 볼 수 있다.

한 개인이 자신의 정서를 어떤 방식으로 조절하는 것은 사회적인 관계형성이나 개인의 신체적, 심리적 건강과 직결된다는 점에서 문제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변수로 볼 수 있다. 출생 직후부터 아동은 말이나 행동, 표정 등 다양한 매개체를 통해 자신의 정서를 표현하고자 하며, 연령이 증가하면서 사회화의 영향으로 자신의 정서를 사회가 허용하는 방식으로 조절해 나가게 된다. 마음에 들지 않는 선물을 받았을 때 실망감을 보이는 대신 기뻐하며 고맙다는 인사를 해야 한다는 것과 같이 어떤 사회에서든지 특정한 상황에서

어떤 정서는 표현해도 되지만 어떤 정서는 표현해서는 안 된다는 규칙이 있다. 첫돌 무렵부터 영아는 불쾌한 사건이나 사람을 피함으로써 부정적 정서유발을 감소시키고자 하는 전략을 발달시키며(Mangelsdorf, Shapiro, & Marzolf, 1995), 이처럼 부정적인 정서를 감추는 정서조절 능력은 유아기에 크게 증가하며, 유아기에는 부정적인 정서를 감추는 능력뿐만 아니라 좌절상황에서의 참을성도 급격하게 증가한다. 아동기에 이르면 자신이 부정적인 감정을 표현하면 부정적인 대인관계가 초래될 것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므로 부정적인 감정을 숨김으로써 초래되는 좌절에 따른 긴장을 감소시키기 위해 여러 가지 전략을 사용하는 방법을 배우게 된다. 정서조절 전략은 자신의 슬픈 감정들을 해소하기 위해 게임이나 색칠하기를 하는 것과 같은 행동적, 외적 방법과 기분전환 활동을 통해 다른 즐거운 생각을 해 보는 것과 같은 인지적, 내적 방법으로 구분할 수 있다. 또한 문제로 인해 발생된 부정적인 감정을 감소시키기 위해 노력하는 정서중심 전략과 부정적인 정서를 야기한 문제 자체를 직접적으로 다루거나 이는 변화시키기 위해 노력하는 문제중심 전략으로 구분할 수도 있다. 그리고 자신의 감정을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함으로써 정서적으로 지지를 받는 사회적 전략과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 정서를 조절하는 독립적인 전략으로 구분할 수도 있다. 아동을 대상으로 한 정서조절전략에 대한 연구에서 Fabes와 Eisenberg(1992)는 아동의 정서조절 전략을 보복, 행동적 저항, 발산, 회피, 성인지지 추구, 부정적 감정의 표현 등으로 구분하여 연구하였으며, Eisenberg *et al.*, (1993)은 아동의 정서조절 전략을 13가지로 구분하고 이를 왜곡과 회피, 공격적 표현, 발산, 지지추구의 4가지 차원으로 분류하였다.

또한 자기유능성지각은 일종의 자아개념으로 한 개인이 자신의 능력에 대한 자기확신을 의미한다. 자아개념과 행동 문제와의 관련성을 다룬 연구들에서는 일반 아동집단과 문제행동을 보이는 아동집단을 비교했을 때에 문제행동집단에서 아동의 자아개념이 낮게 나타났으며, 이러한 낮은 자아개념이 부정적인 가정환경요인의 영향에 의한 것이라고 보고하고 있다(노명선, 조수철, 신민섭, 1999). 이처럼 낮은 자아개념이 불안을 유발하고 이러한 불안이 문제행동을 유발하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으며, 자신의 능력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가 문제행동을 감소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다고 한다.

한편, 지난 30여 년간 개인의 부적응 행동을 예방하는 것에 관심을 가진 많은 연구자들은 이를 유발하는 위험요인들(risk factors)을 규명하는 데 관심을 기울여 왔다. 그러나 최근에는 점차로 위험요인보다 부적응 행동들을 개인적으로 방어할 수 있도록 하는 보호요인들(protective factors)을 밝히는 데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위험요인 가운데 개인수준

의 위험요인에는 타고난 신체적, 유전적 결함 등이 포함되며, 가족수준의 위험요인에는 부모의 정신병리, 부부간의 긴장, 가족구성원들 간의 갈등, 가족해체, 낮은 사회경제적 지위, 부모와의 불안정한 애착, 부모의 지나치게 엄격한 자녀 양육방식 등이 포함된다. 그 외에도 또래집단의 따돌림이나 학업실패 등의 사회적 요인이 포함된다.

아동이 스트레스를 극복하고 긍정적인 결과를 성취하도록 도와주는 보호요인은 위험요인과 비교했을 때 덜 알려져 있다. 하지만, 최근에는 몇 가지 보호요인은 위험요인보다 집중적인 관심을 끌고 있다. 특히 학자들은 개인수준의 보호요인에 관심을 보이고 있는데, 이에 적합한 대인관계기술과 쾌활한 기질, 뛰어난 문제해결능력, 자기효능감(self-efficacy), 긍정적인 자아개념, 높은 성취욕구 등이 포함된다. 보호요인에 대한 관심은 상당히 많은 위험요인이 실제로 차단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아동이 성장과정에서 위험에 노출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부정적인 결과를 보여주는 것만은 아니라는 사실에 근거하고 있다. 즉, 아동이 가지고 있는 보호요인은 위험요인에 노출될 경우에도 이를 극복해 나갈 수 있는 중요한 자원으로 기능할 수 있다는 것이다(정옥분, 정순화, 임정하, 2007: 400-401). 그러므로 보호요인을 강조하고 향상시킴으로써 개인의 적응능력을 높여나가는 것이 보다 효율적인 방법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아동의 자기유능성지각이나 정서조절능력은 중요한 보호요인이라고 볼 수 있으며,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에 개인의 정서조절능력과 자기유능성지각은 이후의 적응에 중요한 문제이며, 이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이 대두된다.

특히 아동의 성별은 정서조절능력이나 문제행동과 관련된 중요한 변수로 지목되고 있다. 정서조절능력에서 여아가 남아보다 뛰어나며, 문제행동의 비율은 여아에 비해 남아가 높게 나타난다(Eisenberg et al., 1993). 이러한 사실은 바로 남아의 낮은 정서조절능력이 문제행동을 유발하는 직접적인 원인이 될 수 있으며, 동시에 정서조절능력을 향상시킴으로써 문제행동을 예방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연구의 필요성을 제기한다. 또한 정서조절능력이나 자기유능성지각에서 출생순위별로 유의한 차이를 보인다(정옥분, 정순화, 2000 : 194)는 기존의 연구결과에 비추어 볼 때에 최근 우리나라의 낮은 출산율로 인해 외동아가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시점에서 아동의 출생순위별 차이를 분석해 보고 이를 외동아와 비교해보는 것도 필요하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지금까지 문제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에 대한 많은 연구가 이루어져 왔으나 이들 연구들은 상당수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연구이며, 동시에 자기유능성지각 및 정서조절과 문제행동을 관련시켜 본 연구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그러나 아동기의 문제행동이 이후 청년

기와 성인기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감안해 볼 때에, 문제행동을 조기에 차단하고 중재하기 위한 차원에서 아동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반드시 필요하다. 또한 개인의 적응에서 보호요인으로서 자기유능성지각이나 정서조절과 같은 변인들이 갖는 중요도에 비추어 본다면 이들 변인과 문제행동과의 관계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이상에서 진술한 연구목적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 첫째, 아동의 성별과 출생순위에 따라 아동의 자기유능성지각, 정서조절능력, 문제행동은 차이가 있는가?
- 둘째, 아동의 자기유능성지각 및 정서조절능력과 문제행동 간에는 상관이 있는가?
- 셋째, 아동의 자기유능성지각과 정서조절능력이 문제행동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은 어느 정도인가?

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부산시에 소재하고 있는 5개 초등학교 4~6학년 남녀학생 357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대상의 표집과정에서는 가정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편중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금정구, 해운대구, 동래구, 진구, 사상구의 5개 지역에서 각각 1개교씩을 유의표집 하였다.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표 1>에 제시된 바와 같다.

2. 측정도구

1) 자기유능성지각척도

아동의 자기유능성지각은 Harter(1982)의 자기유능성지각 척도(Perceived Competence Scale for Children)를 근거로 하여 전경숙(1992)이 만든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일반적 자기지각, 사회적 유능성 지각, 인지적 유능성 지각, 신체적 유능성 지각의 4가지 하위요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체 문항수는 13문항이다.

일반적 자기지각은 일상적인 행동이나 생활방식에 대한 만족도를 의미한다. 사회적 유능성 지각은 친구를 많이 가지거나 쉽게 친한 친구가 되는 것과 같은 의미이다. 인지적 능력지각은 학업성취와 관련된 자기지각은 의미한다. 신체적 능력지각은 운동을 잘하거나 새로운 놀이를 쉽게 배우는 것과 같은 신체적인 능력에 대한 지각을 의미한다.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에서 '매우 그렇다'의 4점 척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평가방법은 아동 자신이 직접 보고하는 방식이다. 점수가 높을수록 자신의 유능성에 대한 지각

〈표 1〉 연구대상의 일반적 특성

변인	구분	빈도(%)	변인	구분	빈도(%)
성별	남	20(56%)	아버지 연령	31-40세	104(29.1%)
	여	157(44%)		41-45세	156(43.7%)
출생순위	첫째	144(40.3%)	어머니 연령	45세 이상	97(27.2%)
	중간	16(4.5%)		31-40세	114(32%)
	막내	58(16.2%)		41-45세	187(52.4%)
	외동	139(39%)		45세 이상	56(15.6%)
어머니 교육수준	고등학교 졸업	189(52.9%)	아버지 직업	무직	10(2.8%)
	대학졸업	158(44.3%)		단순노동직	43(12%)
	대학원졸업	10(2.8%)		기능, 기술직	92(25.8%)
아버지 교육수준	고등학교졸업	54(15.1%)		자영업판매직	107(30%)
	대학졸업	255(71.4%)	사무직	105(29.4%)	
	대학원졸업	48(13.5%)	사회경제적 수준인식	상	72(20.2%)
어머니 직업유무	유	207(58%)		중	196(54.9%)
	무	150(42%)		하	89(24.9%)

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즉, 일반적 자기지각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는 것은 자신의 행동이나 생활방식 전반에 대해 긍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음을 의미하며, 사회적 유능성 지각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는 것은 대인관계에 대한 자신의 능력을 높게 평가하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또한 인지적 유능성 지각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는 것은 학업에서의 자신의 능력을 높게 평가하고 있는 것을 의미하며, 신체적 유능성 지각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는 것은 자신의 신체적 능력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본 척도의 내적합치도도를 나타내는 Cronbach 계수는 .88로 나타났으며, 하위영역별로는 일반적 자기지각(4문항) .72, 사회적 유능성 지각(4문항) .80, 인지적 유능성 지각(3문항) .76 신체적 유능성 지각(2문항) .72으로 나타났다.

2) 정서조절척도

아동의 정서조절 척도는 Eisenberg *et al.*, (1994)의 척도를 근거로 우리나라 상황에 맞게 제작한 임희수(2001)의 정서조절능력척도를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임희수의 정서조절 척도는 문제중심대처 및 지지추구(8문항), 감정발산(7문항), 공격적 표현(7문항), 회피(7문항)의 4 요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문제중심대처 및 지지추구라는 두 요인은 하나의 요인으로 통합하기에는 무리가 있어서 두 개의 요인으로 분리하여 측정하였다. 왜냐하면 문제중심대처는 부정적인 정서를 유발한 문제 자체를 직접적으로 다루는 것이라면, 이에 상응하는 정서중심대처는 문제로 인해 발생된 부정적인 정서를 직접적으로 다루는 것으로 통제가 가능한 상

황에서는 문제중심 대처전략이 보다 효율적이지만 통제가 불가능한 상황에서는 정서중심대처방식이 보다 효율적이라고 한다. 이들 두 가지 대처방식에서의 성차는 나타나지 않는다. 반면, 이와 상이한 차원에서 타인의 도움 유무에 따라서 독립적 대처와 사회적(지지적) 대처로 구분할 수 있는데, 독립적 대처는 타인의 도움 없이 혼자서 자신의 정서를 조절하는 것이라면 지지적 대처는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감정을 이야기함으로써 자신의 정서를 조절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여아가 남아보다 많이 사용하는 방법이다(Brenner & Salovey, 1997 : 168-182). '나는 지난번 시험을 잘 보지 못하여 무척 실망스러웠다. 그러나 다음 시험을 잘 보면 된다고 생각하고 앞으로의 공부계획을 세웠다' 는 문제중심대처를 나타내는 문항과 '나는 학교생활에서 어려움이 있으면 선생님에게 상의드린다' 는 지지추구대처와는 개념상의 차이가 있어서 이론적으로 상이한 두 개의 하위요인을 분리하여 연구하였다.

이 척도는 각각의 문항에 대해 '거의 그렇지 않다(1점)' 에서 '매우 그렇다(4점)' 까지 응답하도록 되어 있는 4점 Likert 척도이며, 평가방법은 아동 자신이 직접 보고하는 방식이다. 점수가 높을수록 각 영역에 해당하는 정서조절 방법을 많이 사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문제중심적 대처는 부정적인 정서를 야기한 문제 자체를 직접적으로 다루거나 이는 변화시키기 위해 노력하는 것을 의미하며, 감정발산은 자신의 정서를 있는 그대로 표출하는 것을 의미한다. 공격적 표현은 자신의 부정적인 정서를 공격적인 행동 등으로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며, 회피는 부정적인 정서를 유발하는 상황이나

대상을 피함으로써 정서를 조절하는 것을 의미한다. 지지추구는 자신의 부정적인 정서를 해결하기 위해 부모나 친구에게 이야기를 함으로써 지지를 구하는 것을 의미한다. 각각의 점수가 높을수록 그러한 방식으로 정서조절을 하는 경향이 강함을 의미하는 것이다. 본 척도의 내적합치도를 나타내는 Cronbach 계수는 .82로 나타났으며, 하위영역별로는 문제중심적 대처(5문항) .68., 감정발산(7문항) .56, 공격적 표현(7문항) .72, 회피(7문항) .67, 지지추구(3문항) .60으로 나타났다.

3) 문제행동척도

아동의 문제행동은 Achenbach와 Quay의 척도를 근거로 하여 김혜련(1994)이 제작한 측정도구를 평가방법을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즉, 김혜련의 측정도구는 ‘예’ ‘아니오’의 두 가지 응답범주로 구성되어 있으며, 긍정적인 내용의 진술인 경우 ‘예’ 일 때 1점을 ‘아니오’에서는 0점을 주었으며, 부정적인 내용의 진술인 경우 이와는 반대로 채점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척도를 4점 리커트척도로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아동의 문제행동은 공격행동, 불안행동, 위축행동, 산만행동, 퇴행행동의 5개 요인이며, 각 요인마다 10개 문항씩 총 5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평가방법은 아동 자신이 직접 보고하는 방식이다. 점수가 높을수록 문제행동의 수준이 높아짐을 의미한다. 본 척도의 내적합치도를 나타내는 Cronbach 계수는 .92로 나타났으며, 하위영역별로는 공격행동(10문항) .82, 불안행동(10문항) .79, 위축행동(10문항) .76, 산만행동(10문항) .81, 퇴행행동(10문항) .64로 나타났다.

3. 연구절차 및 자료분석

본 연구의 조사는 2006년 4월 16일부터 23일까지에 걸쳐 실시하였다. 연구자와 2인의 아동학 박사과정생이 본 연구의 목적을 담임교사에게 설명한 후 아동들을 대상으로 질문지를 실시하였다.

자료분석 방법으로는 연구대상의 일반적 특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빈도와 백분율을 구하고, 측정도구의 신뢰도를 검증하기 위하여 Cronbach 값을 산출하였다. 성별과 출생순위에 따른 자기유능성지각과 정서조절능력, 문제행동수준의 차이를 분석하기 위해 평균 및 표준편차를 산출하고, 이들 평균치들의 차이가 유의한지를 살펴보기 위해 t검증과 일원변량분석을 실시하였다. 집단간 차이를 알아보기 위하여 추후검증방법으로 Scheffe 검증을 실시하였다. 또한 자기유능성지각과 정서조절능력, 문제행동 간의 관계를 분석하기 위해 Pearson적률상관계수를 산출하였으며, 여러 변인들이 아동의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하여 중다회

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기에 앞서 독립변인들 간의 상관관계가 회귀계수에 영향을 주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다중공선성(multicollinearity) 검증을 실시하였다. 이들 자료는 SAS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Ⅲ. 연구결과 및 해석

이상에서 설정한 연구문제에 따라 아동의 성별, 출생순위에 따른 자기유능성지각, 정서조절능력, 문제행동에서의 차이와 이들 변인들 간의 상관관계 및 이들 변인들이 문제행동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을 분석하였으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성별, 출생순위에 따른 자기유능성지각, 정서조절능력, 문제행동

아동의 성별에 따라 아동의 자기유능성지각, 정서조절능력, 문제행동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t검증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2>와 같다.

<표 2>에 나타난 바와 같이 성별에 따라 남아와 여아의 자기유능성지각이나 문제행동에는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그러나 정서조절능력의 감정발산과 지지추구에서는 남아와 여아 간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감정발산에서 여아(M=19.16)는 남아(M=16.51)보다 유의하게 높은 점수를 얻었으며(p<.001), 지지추구에서도 여아(M=8.79)는 남아(M=7.82)보다 유의하게 높은 점수를 얻었다(p<.01). 즉, 정서조절능력에서 여아는 남아보다 감정발산적이고 지지추구적인 정서조절능력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출생순위별로 아동의 자기유능성지각과 정서조절능력 및 문제행동에 대한 차이를 살펴본 결과, <표 3>에서와 같이 아동의 출생순위에 따라 정서조절능력에서는 차이를 보이지 않으나 자기유능성지각의 하위영역 가운데 일반적 자기지각(p<.05)과 사회적 유능성지각(p<.01)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으며, 문제행동에서 불안(p<.01)과 위축행동(p<.05)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이러한 차이가 어떤 집단 간에서 나타난 차이인지를 파악하기 위해 Scheffe 사후검증을 실시하였다.

사후검증결과, 아동의 출생순위에 따른 일반적 자기지각에서는 중간이 가장 높고 다음으로 외동아 그리고 맏이와 막내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맏이와 막내 간에는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적 유능성지각에서는 중간이 가장 높고 다음으로 맏이와 외동아 그리고 막내가 가장 낮게 나타났으며, 맏이와 외동아 간에는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불안행동은 외동아가 가장 높고, 다음으로

〈표 2〉 성별에 따른 아동의 자기유능성지각, 정서조절능력, 문제행동

변인		남아		여아		t 값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자기유능성지각	일반적 자기지각	9.05	3.33	9.04	3.23	1.83
	사회적 유능성지각	7.12	3.08	7.42	3.56	2.02
	인지적 유능성지각	7.71	3.13	7.66	3.14	1.12
	신체적 유능성지각	3.89	2.41	3.54	2.09	1.58
정서조절	문제중심적 대처	12.43	3.64	13.00	3.70	1.16
	감정발산	16.51	4.91	19.16	4.87	12.73***
	공격적 표현	7.24	2.72	7.25	2.46	0.01
	회피	11.03	3.38	11.81	3.06	2.51
	지지추구	7.82	2.66	8.79	2.79	5.45**
문제행동	공격	21.88	6.76	20.52	6.25	1.87
	불안	25.37	9.07	27.26	7.56	2.58
	위축	22.31	7.28	23.06	7.59	0.87
	산만	26.12	7.52	25.11	6.60	0.87
	퇴행	21.12	6.66	22.67	6.42	2.76

*p<.05 **p<.01 ***p<.001

〈표 3〉 출생순위에 따른 아동의 자기유능성지각, 정서조절능력, 문제행동

변인		말이	중간	막내	외동	F 값	Scheffe
		M(SD)	M(SD)	M(SD)	M(SD)		
자기유능성지각	일반적 자기지각	8.98 (3.28)	10.04 (2.82)	8.79 (3.14)	9.62 (4.50)	2.66*	중간>외동>말이, 막내
	사회적 유능성지각	7.25 (3.36)	9.00 (3.50)	6.88 (3.08)	7.12 (3.15)	3.78**	중간>말이, 외동>막내
	인지적 유능성지각	7.62 (2.95)	8.32 (2.42)	7.52 (3.40)	8.12 (3.28)	1.66	
	신체적 유능성지각	3.85 (2.63)	3.80 (2.25)	3.58 (1.91)	3.53 (1.80)	0.36	
정서조절	문제중심대처	13.15 (3.73)	11.72 (4.07)	12.37 (3.52)	11.87 (3.75)	1.60	
	감정발산	17.73 (5.07)	17.66 (5.28)	17.74 (5.03)	15.75 (5.00)	0.84	
	공격적 표현	7.20 (2.65)	7.80 (2.46)	7.25 (2.62)	6.68 (2.54)	0.50	
	회피	11.60 (3.62)	11.00 (2.82)	11.42 (2.84)	9.62 (3.18)	1.66	
	지지추구	8.37 (2.90)	8.32 (2.07)	8.05 (2.76)	8.93 (2.37)	0.51	
문제행동	공격	20.87 (6.76)	22.60 (6.64)	21.38 (6.42)	22.37 (6.21)	0.55	
	불안	27.12 (8.02)	25.88 (5.79)	24.50 (7.51)	30.87 (17.78)	4.13**	외동>말이>중간>막내
	위축	22.79 (7.14)	22.95 (6.49)	22.06 (7.62)	23.06 (8.44)	2.45*	외동, 중간>중간, 말이>막내
	산만	25.54 (7.37)	26.92 (7.17)	25.72 (6.89)	24.50 (7.44)	0.32	
	퇴행	22.03 (6.44)	23.20 (5.27)	20.83 (6.46)	23.43 (8.67)	2.38	

*p<.05 **p<.01 ***p<.001

> : 집단간 유의한 차이와 크기의 방향을 나타냄

, : 유의하지 않음

〈표 4〉 아동의 자기유능성지각, 정서조절능력과 문제행동 간의 상관

변인		문제행동				
		공격	불안	위축	산만	퇴행
자기유능성 지각	일반적 자기지각	-0.385***	-0.270***	-0.370***	-0.317***	-0.244***
	사회적 유능성지각	-0.282***	-0.279***	-0.436***	-0.279***	-0.296***
	인지적 유능성지각	-0.335***	-0.267***	-0.390***	-0.278***	-0.290***
	신체적 유능성지각	-0.221***	-0.093	-0.243***	-0.147**	-0.182***
정서조절	문제중심대처	-0.202***	0.117**	-0.170**	-0.136**	-0.041
	감정발산	0.270***	0.384***	0.229***	0.319***	0.32***
	공격적 표현	0.425***	0.263***	0.274***	0.352***	0.191***
	회 피	-0.012	0.128**	0.079	0.071	0.166**
	지지추구	0.048	0.342***	0.172**	0.137**	0.188***

* $p < .05$ ** $p < .01$ *** $p < .001$

말이, 중간, 막내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네 집단 간에는 모두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위축행동은 외동아가 가장 높고 중간과 말이, 막내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외동아와 말이 간에는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으나, 말이와 중간, 중간과 외동아 간에는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2. 아동의 자기유능성지각, 정서조절능력과 문제행동 간의 상관

아동의 자기유능성지각 및 정서조절능력과 문제행동 간의 관계를 분석하기 위해 아동의 자기유능성지각 및 정서조절능력과 문제행동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는 〈표 4〉에 나타난 바와 같다.

〈표 4〉에 나타난 바와 같이 아동의 자기유능성지각과 정서조절능력은 전반적으로 문제행동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적 자기지각과 사회적, 학업적 유능성지각이 높을수록 공격($p < .001$), 불안($p < .001$), 위축($p < .001$), 산만($p < .001$), 퇴행행동($p < .001$)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신체적 유능성지각이 높을수록 공격($p < .001$), 위축($p < .001$), 산만($p < .01$), 퇴행행동($p < .001$)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정서조절능력과 문제행동 간에도 전반적으로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서조절의 하위영역 가운데 문제중심대처는 공격적 표현($p < .001$), 불안($p < .01$), 위축($p < .01$), 산만행동($p < .01$)과 부적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감정발산과 공격적 표현은 공격($p < .001$), 불안($p < .001$), 위축($p < .001$), 산만($p < .001$), 퇴행행동($p < .001$)과 유의한 정적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회피는 불안($p < .01$), 퇴행($p < .01$)과 지지추구는 불안($p < .001$), 위축($p < .01$), 산만($p < .01$), 퇴행행동($p < .001$)과 정적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두 독립변수인 자기유능성지각과 정서조절능력 간의 상

관은 비교적 낮게 나타났으며($r = .002 \sim .185$), 자기유능성지각의 하위변인간 상관관계($r = .017 \sim .418$)와 정서조절 하위변인들 간의 상관관계($r = .046 \sim .312$)는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3. 아동의 문제행동에 대한 제 변인들의 설명력

아동의 문제해결능력에 대한 여러 변인들의 설명력을 살펴보기 위해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기 전에 독립변인들 간의 상관계수가 회귀계수에 영향을 주는지를 살펴보기 위해서 다중공선성이 존재하는지를 살펴보았으며, 이를 위해 허용도(Tolerance)와 분산팽창요인(Variance Inflation Factor)을 산출하였다. 그 결과, 모든 변수의 허용도 값이 .1 이상이고 VIF값이 10이하였으므로 독립변인들 간에는 다중공선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동의 자기유능성지각과 정서조절능력을 독립변인으로 하고 문제행동을 종속변인으로 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5〉와 같다.

〈표 5〉에 제시된 바와 같이 아동의 문제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 자기유능성지각과 정서조절능력은 아동의 문제행동에 대한 설명력은 불안, 위축, 공격, 산만, 퇴행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문제행동에 대한 관련변인들의 설명력은 불안, 위축, 공격, 산만, 퇴행행동 모두에서 유의하게 나타났으며, 그 설명력은 각각 37.7%, 34.7%, 34.5%, 25.9%, 21.9%로 나타났다.

아동의 자기유능성지각의 하위요인 가운데 일반적 자기지각, 사회적 유능성지각, 인지적 유능성지각과 정서조절의 하위요인 가운데 문제중심대처, 감정발산, 공격적 표현, 지지추구가 불안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즉, 아동의 일반적 자기지각이 긍정적이고 사회적, 인지적, 신체적 유능성지각이 높고 문제중심대처방법을 많이 사용할수록

〈표 5〉 아동의 문제행동에 대한 자기유능성지각과 정서조절능력의 설명력

변인		문제행동				
		공격	불안	위축	산만	퇴행
		β	β	β	β	β
자기유능성 지각	일반적 자기지각	-0.34444***	-0.27862*	-0.30800**	-0.27709**	-0.09972
	사회적 유능성지각	-0.19473*	-0.26735*	-0.63017***	-0.25148**	-0.30523**
	인지적 유능성지각	-0.25246*	-0.40261**	-0.41166***	-0.20342	-0.31392**
	신체적 유능성지각	-0.2615 *	0.04414	-0.33148**	-0.10526	-0.24689
정서조절	문제중심 대처	-0.27661***	0.28806**	-0.27872**	-0.25210**	-0.11585
	감정발산	0.16544*	0.31066***	0.07320	0.25491***	0.26876***
	공격적 표현	0.72549***	0.42192**	0.27707**	0.56959***	0.07178
	회 피	-0.12378	-0.02504	0.01334	-0.01399	0.14436
	지지추구	-0.00542	0.62957***	0.27683**	0.15726	0.19157
F		20.26***	9.57***	20.30***	13.46***	10.78***
R ²		0.3458	0.3771	0.3475	0.2599	0.2195

* $p < .05$ ** $p < .01$ *** $p < .001$

불안수준은 감소하며, 감정발산이나 공격적 표현을 많이 할수록 불안수준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동의 문제행동 가운데 위축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자기유능성지각의 하위요인 가운데 일반적 자기지각, 사회적 유능성지각, 인지적 유능성지각, 신체적 유능성지각과 정서조절의 하위요인 가운데 문제중심대처, 공격적 표현, 지지추구로 나타났다. 즉, 아동의 일반적 자기지각이 긍정적이고 사회적, 인지적, 신체적 유능성지각수준이 높고 문제중심 대처방법, 공격적 표현, 지지추구 전략을 많이 사용할수록 위축행동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동의 문제행동 가운데 공격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자기유능성지각의 하위요인 가운데 일반적 자기지각, 사회적 유능성지각, 인지적 유능성지각, 신체적 유능성 지각과 정서조절의 하위요인 가운데 문제중심대처, 감정발산, 공격적 표현으로 나타났다. 즉, 아동의 일반적 자기지각수준이나 사회적, 인지적, 신체적 유능성 지각 수준이 높고 문제중심대처방법을 많이 사용할수록 공격행동은 감소하고 감정발산이나 공격성 표현을 많이 할수록 공격행동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행동 가운데 산만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자기유능성지각의 하위요인 가운데 일반적 자기지각, 사회적 유능성지각과 정서조절의 하위요인 가운데 문제중심대처, 감정발산, 공격적 표현으로 나타났다. 즉, 아동이 자신에 대한 전반적인 지각이 긍정적이고 아동의 문제행동 가운데 퇴행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자기유능성지각의 하위요인 가운데 사회적 유능성지각, 인지적 유능성지각과 정서조절의 하위요인 가운데 감정발산

으로 나타났다. 즉, 아동이 자신을 사회적으로나 인지적으로 유능하다고 생각하고 자신의 정서를 있는 그대로 표현할수록 위축행동은 감소한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I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아동의 자기유능성지각과 정서조절능력이 문제행동 간의 관계를 살펴보고자 하였으며, 그 연구결과를 요약하고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성별에 따라 정서조절의 감정발산과 지지추구에서, 출생순위별로는 자기유능성지각의 일반적 자기지각과 사회적 유능성지각 그리고 문제행동의 불안과 위축행동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남아와 여아 간에는 자기유능성지각과 문제행동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으나 정서조절의 감정발산과 지지추구에서 여아는 남아보다 유의하게 높은 점수를 얻었으며, 이는 정서조절에서 여아는 남아보다 감정발산적이고 지지추구적인 정서조절방법을 사용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여아의 감정발산수준이 높다는 기존의 연구결과(임희수, 2001; Eisenberg *et al.*, 1993)와도 일치하는 것이다. 이러한 남녀의 차이는 성장과정에서부터 여아에게는 자신의 감정을 발산하거나 자신의 정서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타인의 지지를 구하는 것이 허용되는 반면 남아에게는 남성답지 못한 행동으로 금지되는 우리 사회의 정서

표현 방식을 상당 부분 반영하는 것이다. 정서조절에 대한 국내의 연구에서 남아와 여아 간에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기도 하지만(이지선, 유안진, 1999), 아동 자신이 평가한 정서조절에서는 여아가 남아보다 감정발산과 공격적 표현을 더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임희수, 2001).

출생순위별로는 정서조절능력에서는 차이를 보이지 않으나 자기유능성지각의 하위영역 가운데 일반적 자기지각과 사회적 유능성지각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으며, 문제행동에서 불안과 위축행동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아동의 출생순위에 따른 일반적 자기지각에서는 중간이 가장 높고 다음으로 외동아 그리고 맏이와 막내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맏이와 막내 간에는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적 유능성지각에서는 중간이 가장 높고 다음으로 맏이와 외동아 그리고 막내가 가장 낮게 나타났으며, 맏이와 외동아 간에는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중간 자녀가 맏이나 막내, 외동아에 비해 일반적 자기지각이나 사회적 유능성지각에서 보다 높은 점수를 받은 것으로 나타난 본 연구의 결과는 맏이가 중간 자녀보다 자아개념에서 높은 점수를 얻는다는 기존의 연구결과와는 다소 차이를 보인다. 이러한 사실은 저출산율로 인해 부모들이 지나치게 자녀를 과잉보호하고 많은 기대를 하게 되면서 오히려 외동아나 맏이, 막내에 비해 중간자녀가 이러한 부담에서 벗어남으로써 나타나는 현상일 가능성을 있으며, 동시에 전체 연구대상 가운데 중간자녀의 비율이 다른 집단에 비해 낮아서 표본상의 문제로 인해 나타나는 문제일 가능성도 있다. 그러므로 추후 연구를 통해 이러한 원인을 추적해 보는 것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된다. 반면, 불안행동은 외동아가 가장 높고, 다음으로 맏이, 중간, 막내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네 집단 간에는 모두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위축행동은 외동아가 가장 높고 중간과 맏이, 막내의 순으로 나타났다. 위축행동에서 외동아와 맏이 간에는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으나, 맏이와 중간, 중간과 외동아 간에는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출생순위별로는 일반적으로 맏이가 가장 불안행동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는 기존의 연구결과와 일치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맏이의 경우 부모는 자녀양육에 대한 경험이 부족하기 때문에 불안하고 과잉보호적인 태도를 보이게 되어 자녀는 다소 의존적이고 불안한 특성을 보인다고 한다(정옥분, 정순화, 2000: 166). 따라서 외동아의 불안수준이 가장 높게 나타난 것은 맏이와 유사한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이처럼 외동아의 불안이나 위축행동수준이 높다는 사실은 현재 우리나라의 출산율에 비추어 볼 때에 많은 문제점을 시사하는 것이다. 최근 빈번하게 보도되고 있는 집단따돌림의 문제도 한자녀가 대부분을 차지하는 우리 사회에서 부모도 자신의 역할을 수행하는

데에 자신감을 갖지 못하고 따라서 자녀의 불안이나 위축수준이 증가하며, 이러한 행동특성을 지닌 아동은 결과적으로 사회적 상호작용에서 능숙하지 못하고 궁극적으로 집단따돌림과 같은 문제를 유발하게 되는 원인이 될 수 있다. 그러므로 한자녀 가정의 아동을 대상으로 기존의 형제관계를 대신할 수 있는 사회적 상호작용을 제공해 줄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이 절실하게 필요하다.

둘째, 아동의 자기유능성지각과 정서조절능력은 전반적으로 문제행동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기유능성지각이 높을수록 문제행동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정서조절의 하위영역 가운데 문제중심대처는 문제행동과 부적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감정발산이나 공격적 표현, 회피, 지지추구는 문제행동과 정적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Phares와 Compas(1990)는 자기개념과 불안과는 부적인 상관관계가 있다고 하였다. 즉, 아동의 주관적인 고통은 문제행동 자체보다도 자신의 행동과 자기가치에 대한 자기지각과 관련이 있다는 것이다. 문제행동을 보이는 아동들은 낮은 자기개념을 가지고 있으며, 따라서 스트레스를 더 받게 되고 불안감이나 우울감을 호소할 가능성이 더 높게 된다. 김병로 외 2인(1994)도 자기개념과 문제행동 간에는 상관관계가 있으며, 비행청소년은 일반적으로 자기개념이 낮다고 하였다. 이러한 사실은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실체와는 달리 자신에 대한 지각이 어떠한지에 따라 아동의 문제행동수준은 달라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자신에 대한 왜곡된 생각을 정정해 주고 자아개념을 향상시키기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되며, 이들을 대상으로 인지행동치료는 상당히 효과적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동시에 자아개념의 상당 부분이 중요한 주변인물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형성된다는 사실에 비추어 볼 때에 부모와의 상호작용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실제로 청소년의 문제행동에 대한 인지행동 집단치료를 통해 문제행동수준이 유의하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민성길 외 4인, 1999). 또한 어머니의 문제중심적 정서조절방식은 아동의 정서조절방식과 관련이 있으며(Eisenberg, Fabes, & Murphy, 1996; Garner & Power, 1996), 아동의 외현적 문제행동에 대한 부모훈련의 효과도 유의하게 나타났다(박중규, 오경자, 2004). 이러한 연구결과는 어머니의 정서조절능력은 아동의 정서조절능력과 관련이 있으므로 아동의 정서조절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부모의 정서조절능력을 훈련시키는 것이 한 가지 방안이 될 수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며, 나아가 아동의 정서조절 능력을 향상시키는 것은 문제행동의 예방이나 방지 차원에서 상당히 의미가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셋째, 아동의 문제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 문제행동에 대한 관련변인들의 설명력은 불

안, 위축, 공격, 산만, 퇴행행동 모두에서 유의하게 나타났으며, 그 설명력은 각각 37.7%, 34.7%, 34.5%, 25.9%, 21.9%로 나타났다. 이처럼 아동의 자기유능성지각과 정서조절이 문제행동을 설명하는 비율이 이처럼 높다는 사실은 본 연구에 사용된 척도 모두가 동일한 아동에 의해 평가된 것이므로 상호간에 공유된 변량이 존재할 수 있는 가능성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이와 동시에 부모의 상호작용 방법뿐만 아니라 아동의 자기유능성지각과 정서조절능력을 향상시키는 것이 문제행동을 예방할 수 있는 얼마나 효율적인 방법이 될 수 있는가를 말해주는 것이다. 특히 그 가운데서도 불안과 위축행동에 대한 설명력이 가장 크다는 것은 아동의 문제행동을 예방하거나 감소시키는 데 있어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 즉, 낮은 자아개념이 불안을 유발하고 이러한 불안이 문제행동을 유발하는 중요 요인이라는 연구결과(노명선 외 2인, 1999)에 비추어 본다면, 자기유능성지각과 정서조절능력을 향상시킴으로써 문제행동에 보다 효율적으로 대처해 나가는 것이 가능하다고 볼 수 있다.

아동의 정서조절능력은 부모 요인뿐만 아니라 다양한 요인을 통해 형성되는 것이며, 동시에 가변성이 큰 대표적인 능력이기도 하다. Salovey와 Mayer(1990)는 아동의 정서교육은 가정에서 부모와의 상호작용을 통해 이루어진다고 하였으며, 부모는 자녀로 하여금 자신의 정서를 인식하고 이를 적절한 방식으로 표현하고 이를 사회적 상황에서 적절하게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준다고 하였다. Goleman(1995)도 어린 시절 부모와의 정서적 경험이 이후 정서발달과 사회적인 능력의 기초가 된다는 점에서 부모와의 상호작용을 중시하였다. 부모가 정서적인 능력을 향상시키는 중요한 요인임은 부인할 수가 없으나 이러한 상호작용에서 결손이 일어나는 경우도 높은 비율을 차지한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정서조절능력이 중요한 보호요인임을 감안해 볼 때에 학교의 정규교과과정이나 과외의 프로그램을 통해 아동의 정서조절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 아동이 학습하는 여러 교과목이나 활동을 통해 타인의 감정을 이해할 수 있고, 자신의 감정을 표현할 수 있고, 조절할 수 있다면 문제행동은 상당 부분 감소할 것으로 볼 수 있다. 즉, 부모나 또래로부터 부정적인 상호작용이 주어진다 하더라도 그러한 부정적인 상호작용조차도 긍정적인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능력을 길러줄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이 필요할 것이다.

본 연구는 문제행동과 관련된 여러 변인 가운데 지금까지 연구가 부족한 자기유능성지각과 정서조절능력과 문제행동 간의 관계를 살펴보았으며, 문제행동에 대한 이들 변인의 설명력은 상당히 높게 나타났다. 그리고 자기유능성지각과 정서조절능력이 아동의 문제행동을 완충시킬 수 있는 중요한 보호요인으로서 작용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그러나 본 연구는 문제행동이나 정서조절, 자기유능성지각에 대한 자료를 질문지를 통한 아동의 자기보고 방식에 전적으로 의존하였기 때문에 아동이 보다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행동으로 대답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은 연구의 한계로 볼 수 있다. 실제로 자녀의 문제행동에 대해 어려움을 호소하는 당사자가 부모이고, 아동이 자신의 문제행동을 지각하는 것도 용이하지 않거니와 이를 지각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자신의 문제를 은폐하고자하는 의도도 다분히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기존의 연구와 마찬가지로 본 연구에서도 정서조절척도의 하위요인 가운데 감정발산에 대한 신뢰도가 다소 낮은 것은 이후의 연구과정에서 감정발산요인에 대해 보다 명확한 개념정의와 더불어 척도상의 보완이 이루어져야 할 부분이다.

앞으로 문제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의 탐색에 대한 지금까지의 연구결과를 토대로 하여 문제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변수들 간의 인과모형을 설정하여 문제행동에 대해 보다 깊은 이해가 이루어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 동시에 아동의 정서조절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지속적인 교육이 필요하며, 또한 이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 참고문헌

- 곽금주, 문은영(1995). 심리적 특성 및 우울과 비행간의 관계 (II). 청소년 이전기를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8(1), 1-11.
- 곽소현, 김순옥(2006). 어머니의 아동기 애착, 정서, 양육행동과 아동의 문제행동의 경로모형분석.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4(6), 95-116.
- 김병로, 조수철, 신윤오(1994). 한국판 소아자기개념척도개발. 신경정신의학, 33(6), 1351-1369.
- 김혜련(1994). 부모의 언어적 학대와 아동의 정서적 부적응 행동과의 관계. 숙명여자대학교 석사학위 청구논문.
- 노명선, 조수철, 신민섭(1999). 행동문제 원인의 구조적 모델에 관한 연구. 소아·청소년 정신의학, 10(1), 3-14.
- 민성길, 이호분, 육기환, 남궁희승, 류경희(1999). 청소년의 문제행동에 대한 인지행동집단치료의 효과. 신경정신의학, 38(4), 816-825.
- 박종규, 오경자(2004). 아동의 외현적 문제행동에 대한 부모 훈련 프로그램의 효과. 한국심리학회지 : 임상, 23(4), 829-849.
- 이경주, 신희식(1997). 청소년 자녀가 지각한 사회적 지지원 및 지지유형 수준에 따른 부적응. 한국가정관리학회지,

- 15(4), 15-26.
- 이선경, 이재연(1998). 아동의 문제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위
기요인과 보호요인의 이론적 과정모델. *아동학회지*,
19(2), 49-64.
- 이소희, 노경선, 손석한, 옥정, 김광일(2002). 청소년의 애착
상태와 문제행동 간의 관계. *신경정신의학*, 41(2), 275-
282.
- 이지선, 유안진(1999). 분노 및 슬픔 상황에서 아동의 정서조
절 동기와 정서조절 전략. *아동학회지*, 20(3), 123-137.
- 임희수(2001). 아동의 기질, 어머니의 정서조절 및 양육행동
과 아동의 정서조절 간의 관계. 이화여자대학교 박사
학위 청구논문.
- 전경숙(1992). 부모-아동간 신념의 일치도와 아동의 학업성
취도 및 자기능력지각과의 관계. 숙명여자대학교 박사
학위 청구논문.
- 정옥분, 정순화(2000). *부모교육*. 서울:양서원.
- 정옥분, 정순화, 임정하(2007). *정서발달과 정서지능*. 서울:학
지사.
- 정현희, 오미경(2000). 아동의 감각추구성향 및 어머니 양육
행동과 남녀 아동의 문제행동과의 관계. *대한가정학회
지*, 38(6), 171-183.
- 정현희, 정순화(2004). 아동의 문제행동과 관련변인에 대한
연구. *인간발달연구*, 11(2), 1-19.
- 최영희(1990). 아동의 기질이 모자상호작용과 아동의 문제행
동에 미치는 경향성에 대한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박
사학위 청구논문.
- Brenner, E. M., & Salovey, P.(1997). Emotion
regulation during childhood: Developmental,
interpersonal, and individual considerations. In
P. Salovey & D. J. Sluyter(Eds.), *Emotional
development and emotional intelligence*. New York:
Basic Books.
- Eisenberg, N., Fabes, R. A., Bernzweig, J., Karbon, M.,
Poulin, R., & Hanish, L. (1993). The relations of
emotionality and regulation to preschoolers' social
skills and sociometric status. *Child Development*,
64(5), 1418-1438.
- Eisenberg, N., Fabes, R. A., & Murphy, B. C.(1996).
Parents' reactions to children's negative emotions:
Relations to children's social competence and
comforting behavior. *Child Development*, 67, 2227-
2247.
- Eisenberg, N., Fabes, R. A., Nyman, M., Bernzweig, J.,
& Pinnelas, A.(1994). The relations of
emotionality and regulation to children's anger-
related reactions. *Child Development*, 65, 109-128.
- Fabes, R., & Eisenberg, N.(1992). Young children's
coping with interpersonal anger. *Child
Development*, 63, 116-128.
- Garner, P. W., & Power, T. G.(1996). Preschoolers'
emotional control in the disappointment
paradigm and its relation to temperament,
emotional knowledge, and family expressiveness.
Child Development, 67, 1406-1419.
- Goleman, D.(1995). *Emotional intelligence*. New York :
Bantam Books.
- Harter, S.(1982). The perceived competence scale for
children. *Child Development*, 53, 87-97.
- Kauffman, J. M.(1993). *Characteristics of emotional and
behavioral disorders of children and youth*(5th ed.).
New York : Macmillan.
- Mangelsdorf, S. C., Shapiro, J. R., & Marzolf, D.(1995).
Developmental and temperamental differences
in emotion regulation in infancy. *Child
Development* 66, 1817-1828.
- Phares, V., & Compas, B. E.(1990). Adolescents'
subjective distress over their emotional/
behavioral. problems.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58, 596-603.
- Salovey, P., & Mayer, J. D.(1990). Emotional
intelligence. *Imagination, Cognition, and Personality*,
9, 185-211.

(2007년 5월 31일 접수, 2007년 7월 12일 채택)